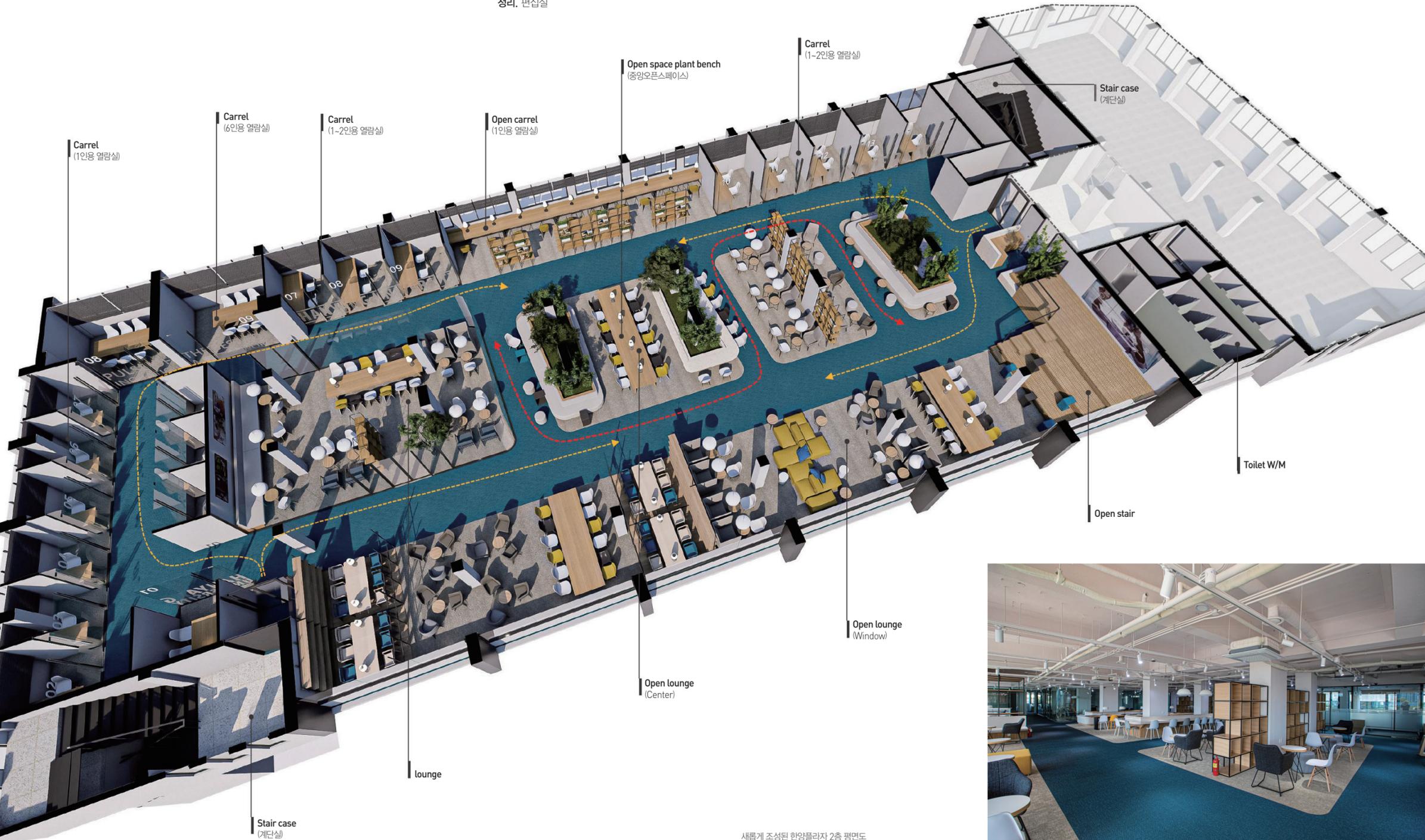


# 한양플라자, 'HOLMZ(홀름즈)'로 새단장하다

한양플라자(학생복지관)는 한양대학교에서 역사관과 함께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공간이다. 최근 이곳이 많은 동문과 후원자들의 뜨거운 사랑과 응원, 모교 발전을 위한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학습공간으로 완성됐다.

정리, 편집실



새롭게 조성된 한양플라자 2층 평면도

## 편안하게 학문 탐구할 하이브리드 학습 복합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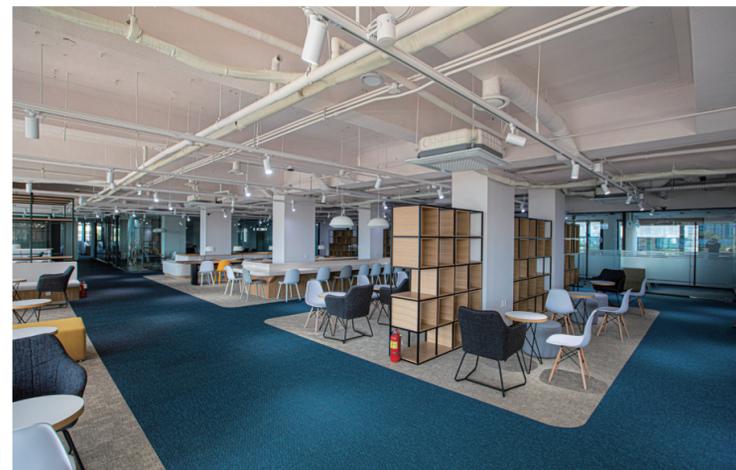
한양플라자(학생복지관)는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다. 1956년 설립 이후 오랜 세월 다양한 변화와 함께 한양을 지켜온 한양플라자 2·4층이 최근 'HOLMZ(홀름즈)'로 새롭게 선보여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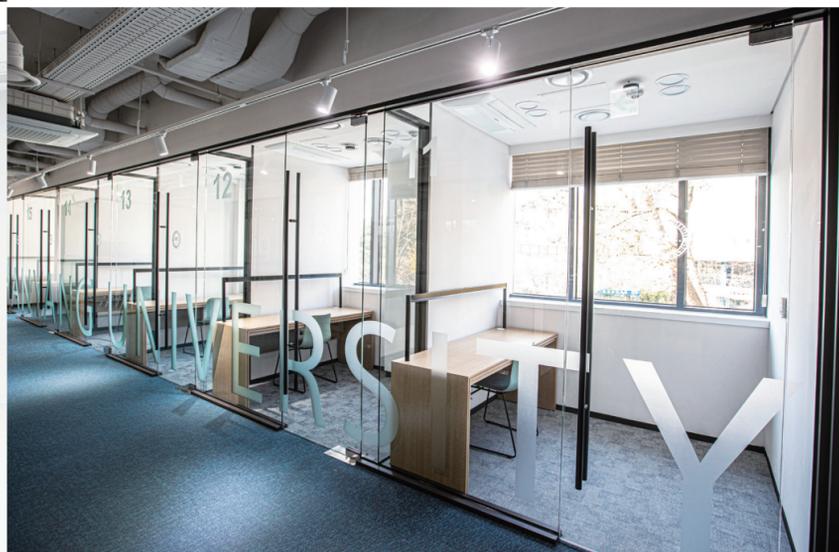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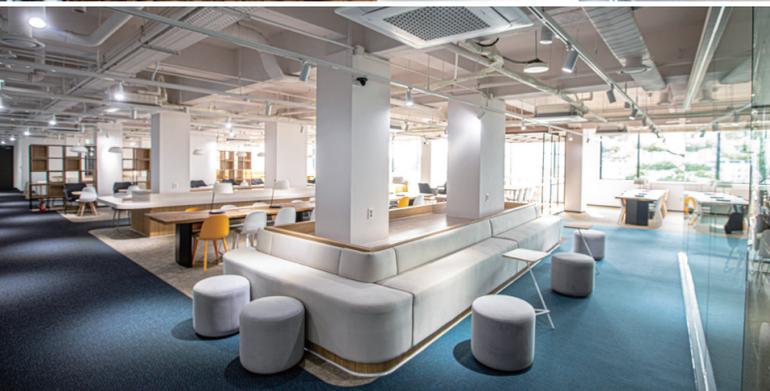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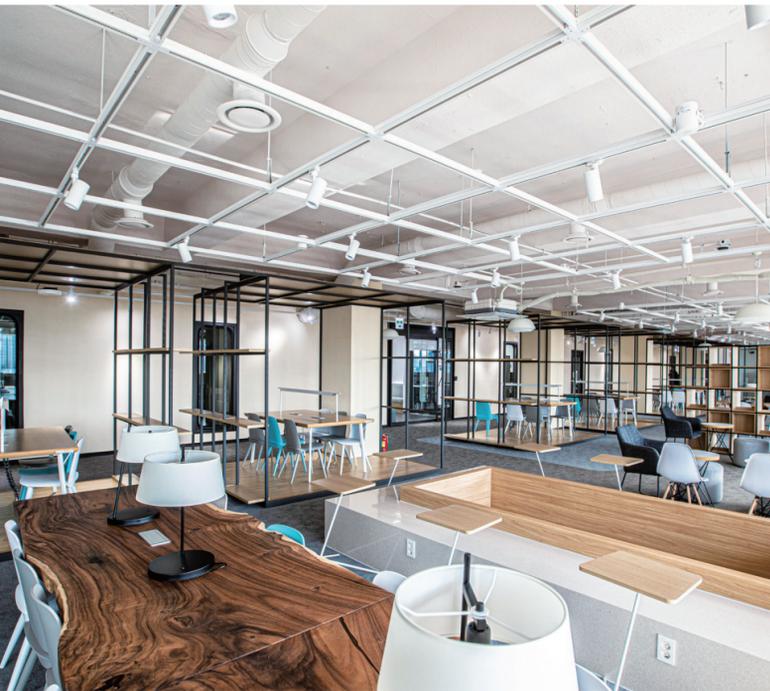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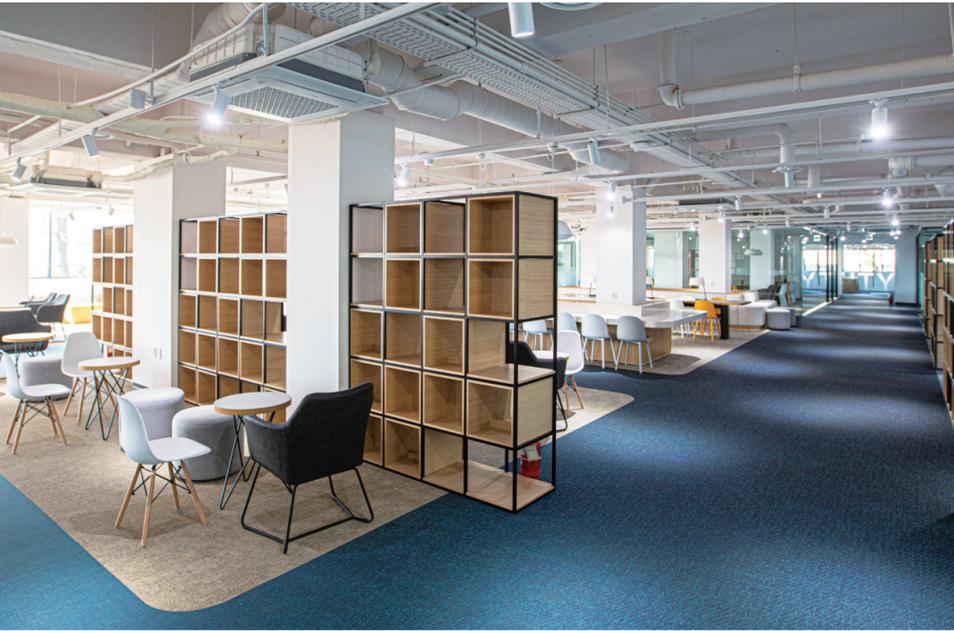
지난 4월 초 개관한 HOLMZ(홀름즈)는 한양플라자 2·4층에 위치한 학습 공간이다. HOLMZ는 'Hanyang Ontact Learning Metaverse Zone'의 약자로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집과 같은 편안한 느낌의 'Home'과 미지의 학문을 탐구한다는 의미로 탐정 '셜록 홈즈(Sherlock Holmes)'의 홈즈를 결합해 학생들이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며 미지의 학문을 탐구하라는 뜻으로 기획됐다. 이처럼 HOLMZ는 최첨단 온라인 학습관의 디지털 기반 인프라와 집처럼 편안한 느낌의 아날로그 감성이 함께 공존하는 곳으로, 학습을 위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어디든지 연결이 가능한 학습 복합공간이다.

새로운 공간의 콘셉트와 기획 설계는 교육혁신팀이 담당했고, 운영은 학생 서비스를 담당하는 백남학술정보관 학술기획운영팀이 맡는다. 한양플라자 리모델링을 진행한 양주성 교육혁신팀장은 "백화점 몰(mall)처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학습의 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편했다"며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편안하게 온라인 학습에 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 셔터, 라운지, 개인용 열람실 등 다양한 공간 마련

새로운 공간인 HOLMZ에는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우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각층에 산소





발생기와 소음 중화 시스템 등을 설치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높일 공간이 다양하게 선보였다. 학생들이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2층 약 300평의 공간에는 250석의 좌석을, 4층 약 290평의 공간에는 220석의 좌석을 마련했다. 2층에는 자유로운 휴식을 위한 선택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좌석 타입을 구비해 개방적이고 캐주얼한 공부 가능한 오픈형 학습 공간인 라운지가 들어섰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예약을 통해 인원 수에 맞춰 프라이빗한 학습 활동이 가능한 스터디룸 '캐럴(개인용 열람실)'과 개방감을 살려 자유로운 토론과 협업이 가능한 스터디룸 '오픈 캐럴' 등 학습의 질을 높일 공간도 충분하다.

양주성 팀장은 “기존 학습시설보다 좋은 가구와 기자재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개인 무선 충전 좌석 및 오픈 열람대 설치 등으로 고급스럽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R 학습실, 코딩 실습실, 유튜브 체험실 등 조성**

4층에서는 BK사업을 통해 조성된 대학원생 전용 라운지와 다양한 종류의 좌석 타입을 구비한 개방적인 공간의 라운지, 한양 동문들의 기부를 받아 구축된 세미나룸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 공간에는 VR 학습실, 코딩 실습실, 화이트 스튜디오, 유튜브 체험실이 들어서 눈길을 끈다.

VR 실습실은 원격교육의 약점으로 꼽힌 낮은 학습 몰입도, 비대면 접촉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할 실감형 기술들로 구성됐다. 다양한 실험 실습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타 대학과 연계 확산할 수 있어 유용하다. 코딩 실습실은 강의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고 녹화할 수 있는 LIVE+ 강의실의 기능과 대용량의 확장현실(XR) 코딩 실습이 가능하도록 조성했다.

화이트 스튜디오에서는 SNS 공유용 영상 촬영, 졸업작품, 자기소개 취·창업용 영상 등 학생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체험실은 개인용 영상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공간이다.

한편, HOLMZ의 캐럴과 스터디룸은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2층 HOLMZ 공간 입구에 배치된 키오스크를 활용해 편리하게 좌석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오픈 라운지와 캐럴을 빠르고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그 밖에 백남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캐럴실 예약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파란만장 한양플라자 변천사**



1950년대

지금의 학생복지관(한양플라자)은 1956년 11월에 준공됐다. 원래 제1공학관으로 공과대학 수업이 진행되던 건물이었으며, 현재 역사관(구 본관)과 더불어 한양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1988년

1980년대부터는 자연과학대학 건물로 사용됐다. 많은 80년대 학번 동문들이 지금도 여전히 자연과학대학 건물로 기억하고 있다.



1992년

1992년부터 학생복지관으로 용도가 바뀌며 식당과 복지매장들이 들어섰다.



2000년대

2000년대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의 외관과 함께 한양플라자라는 이름을 얻었다. 2020년에는 냉난방기와 실외기, 덕트 시설, 테라스 등 건물 보수를 위한 공사를 새롭게 진행했으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상가들이 입점했다.